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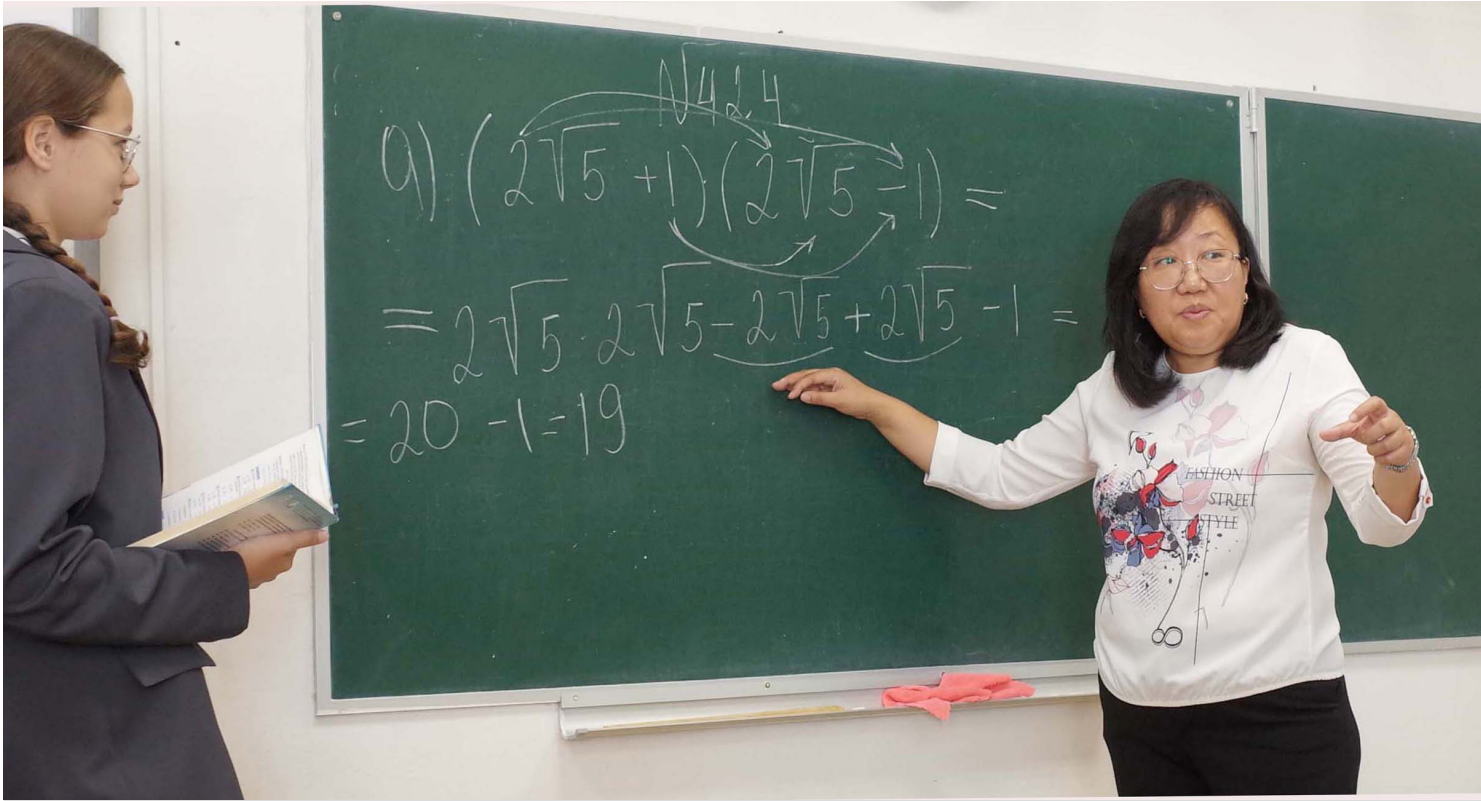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5년 10월 3일(금)
---(윤력 8월 12일)---
Пятница
3 октября 2025 г.
№ 39 (12156)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10월 5일은 교사의 날

▶ 박 이리나 드미트리예브나(본명 박 이리나 주니로브나)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동양김나지아의 수학교사다. 그녀가 교육 분야에 종사한 지 27년이 넘었다.

유즈노사할린스크국립사범대학을 졸업한 후 그는 제13중학교에서 장기간 일하기도 했다.

자신의 일을 좋아하며 항상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교사다. 2024년에 그는 교육 분야에서의 공로로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두마(의회)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이예식 기자 촬영)

감사합니다!

지난 8월에 사할린을 다녀간 (사)희망래일 역사방문단에서 새고려신문사가 컴퓨터 등 장비 교체가 필요하다는 정보에 응하여 얼마전에 성금을 보내왔다.

새고려신문사는 성금에 참여한 방학진(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허태곤(두보식품 대표), 신동순(숙대 중어중문학과 교수)와 이동섭(희망래일 이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사할린주 교육자 여러분!

10월 5일 교사의 날을 맞아 교사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사할린의 미래이자 우리나라의 미래인 성장하는 세대를 위한 교육과 양육에 삶을 헌신해오셨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은 크나큰 헌신을 요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 속에 탐구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함과 정직과 책임감, 애국심 등 우수한 인간적인 자질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교사들의 효과적인 교육활동을 위해서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사의 전문적인 자기 실현을 위한 여건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주내 학교들에서 관료주의적 부담감을 줄이기 위한 기획을 시행하고 있고, 학생들에게 흥미로운 교육과정과 활발한 방과 후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교사들을 위한 창조산업>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학생들과 함께 생활 속에서 실현시킬 수 있는 밝고, 창의적 활동을 주도하도록 촉진할 것입니다.

특히 은퇴하신 선생님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여러분은 어린 세대를 가르치시고, 그들과 함께 활동하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이셨으며, 훌륭한 후계자들을 양성하셨습니다.

친애하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속에 타오르는 불꽃이 언제나 꺼지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께 강건함과 시들지 않는 영감과 변연, 순수한 인간적 행복을 기원하며, 교사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

러시아 45 개 지역들의 전문가들, 사할린에서 인적 잠재력개발의 사례 논의

전문가들이 직접 참가하는 <지역에서 청년들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여건 조성> 교육일정 및 회의가 조성되어 마무리 행사로 사할린주에서 청년 전문가들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과 실행을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인 <지역들의 추진력>이 진행된다.

행사 주체는 로스몰로조위의 기획인 '오스트로와' 전문성 개발센터이다.

<지역들의 추진력> 프로그램은 8월 초 온라인상에서 시작되었으며, 지역들에서 청년들의 전문성 개발서비스 방안 구축이 목적이다. 약 두 달 동안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과 기업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주어진 도구들을 이용해 청년 전문가들의 고유한 잠재력을 발굴해 돕는 것을 지향하는 지원체계를 논의한다. 직접 참가단계의 일환으로 전국 45개 지역들에서 참가자들이 사할린에 도착했다. 이에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유능한 청년들이 사할린 지역에 머물며, 여기서 자신의 경력을 쌓고, 가정을 이루며 살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사할린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석유 및 가스, 수산업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누비는 곳이다.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획을 실행할 수 있는 고도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우리는 우수 대학들을

비롯해 과학연구소와 대형 기업들과 협력을 맺고, 대학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경제의 수요를 고려해 인재를 양성하고, 그 졸업생들이 우리의 핵심 분야들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사할린주에는 첨단공학 분야를 비롯해 여러 분야에 6천 개의 일자리 채용이 있다. 사할린 지역 경제의 기반은 대륙붕 석유가스산업, 석탄채굴산업, 수산업이다. 또한 코르사코프 항구를 거점으로 물류 - 운송의 허브가 구축되고, 무인항공기를 위한 무인기 공항이 국내 최초로 개장되었으며, 사할린 국립대학을 거점으로 세계적 수준의 사할린테크 캠퍼스가 건설 중이다.

전문가들의 회의에서는 사할린주에서 전문가 양성 및 인적자원 구축을 위해 실행되고 있는 핵심적인 사업기획들을 논의했다. 사할린의 직업지도프로그램은 학교에서부터 시작되고 있고, 중등직업교육기관과 대학에 입학 시 '사회적 진출의 안내'를 통해 교육과 이어지는 취업 방향을 준비하게 한다. 특히 다른 지역들에서 온 고급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에게는 취업정보와 청년 가정을 위한 지원책(주택담보대출 혜택) 및 교육과 보건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사회 진출, 집, 가정' 서비스에 큰 관

심을 기울이고 있다.

또 하나 관심을 기울이는 방면은 특수군사작전의 참전병사들과의 활동이다.

이번 교육과정 및 회의의 참가자이며, '사할린과 쿠릴의 영웅'지역 프로그램의 참가자인 세르게이 포포브는 군대에서 제대를 앞둔 장병들과 사업에 대한 새로운 기획을 시작하길 제안했다. 리마렌코 주지사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지지하고, 시범기획은 이미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검증되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연방 청년사업청장 보좌관인 올레그 마카로브는 다양한 지역들에서 온 전문가들과의 공동회의는 실사례들의 경험과 효율성 교환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향후 사업을 위한 궤도를 형성하고, 지역의 인적 자원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 행사는 '로스몰로조위. 포럼'의 플랫폼인 <오스트로와> 전 러시아 청년포럼 진행 기간에 조성되었다. 이번 포럼은 '청년과 아동' 국민기획의 일환으로 개최되었고, 이에 자원봉사자들을 포함해 전문가들과 전 러시아 다양한 지역들에서 온 참가자들 및 해외의 참가자들 620명이 참가했고, 폐막식은 10월 4일에 열린다.

포럼은 청년사업청(로스몰로조위)과 사할린주 정부가 주최했다.

(사할린 주정부 자료에서)

2026년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6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반기 구독료는 885,96 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사할린주, 노후주택으로부터 이주를 위해 10억 루블리 받아

사할린주 지역관리센터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사할린주는 노후주택으로부터 1만 명 이상의 주민을 이주시킬 계획인 가운데 노후주택으로주터 주민을 이주시키는 새로운 단계의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을 승인받았다.

이러한 결정이 지역개발기금에서 채택됐다고 러시아 연방 정부 부총리인 마라트 후스누린이 발표하며 "주민들의 생활을 위한 편안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다. 이에 추진력을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단계의 범주에 사할린주를 포함해 11개 지역에 자금이 배정된다. 총 지원금은 20억 루블리가 넘으며 이를 통해 총 22만m²가 넘는 노후주택들의 주민 약 1만600명이 이주를 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주도하는 '생활을 위한 기반시설구축' 국민기획의 일환으로 건설부의 감독 아래 시행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2030년까지 노후주택의 거주자 34만 5천 명의 주민 이주할 전망이다,

10월 5일은 교사의 날

유즈노사할린스크 제6학교 심 스웨틀라나 부교장: "이 학교를 그만둘 생각은 없다"

10월 5일, 러시아의 따뜻한 가을을 수놓는 특별한 날이 찾아온다. '교사의 날'이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되는 선생님이 있다. 교육계에 종사하는 동포들도 적지 않다. 그래서 9월 말이 되면 필자는 기사 주인공으로 교사를 소개해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한다. 이번에도 교육계에 종사하는 지인에게 동포 교사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했다.

심 스웨틀라나 제예노브나(38)씨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제6중학교 부교장이자 영어 교사다. 초등, 중등, 고등 과정을 모두 포함한 이 학교는 올해까지만 해도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가장 큰 학교였다. 학생 수는 2200명에 달하고, 교직원만 약 12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처음 이 학교를 찾은 필자는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에 놀랐다. 심 스웨틀라나 부교장에 대한 첫인상은 매우 젊고, 20대 초반처럼 보이며, 에너지가 넘쳐 보였다. 직원들과 교사, 학생들이 그녀를 존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알고 보니 그녀는 현재 휴가 중인 교장선생님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었다.

스웨틀라나 부교장은 이 학교에서 일한 지 8년이 되었고, 2008년 유즈노사할린스크 경제·법률·정보학 대학을 졸업했다. 사할린동포가 운영하던 이 사립대는 당시 인기가 많았다. 그녀의 전공은 영어와 중국어

였다.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번역가 자격증을 딴 후, 어학 연수를 위해 바로 중국으로 떠났다. 하얼빈에서 기차로 3시간 정도 떨어진 창춘시에서 유학을 했고, 아르바이트도 했다. 동시에 유즈노사할린스크 대학에서 외국어 교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를 계속했다.

사할린으로 돌아온 스웨틀라나는 외국어 교사 자격증을 살려 외국어 교육센터에서 일했다.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낳았다. 그런데 그녀의 부모님께서 학교 선생님이 되어 보라고 권유했다. 특히 "아버지께서 선생님이 되어 보라고 하셨죠. 솔직히 저는 교사가 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제가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라고 미소 지으며 털어놓았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그만두면 된다.'는 거였어요."

알고 보니, 사할린 동포 2세인 아버지와 고려인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스웨틀라나의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도 교육자였다. 특히 외할머니께서 프랑스어 교사였다고 한다.

막내 아이가 두 살이 되었을 때,



스웨틀라나가 사는 아파트 근처에 있는 제6학교에 마침 영어교사를 필요로 해서 지원서를 냈다. 당시 교장선생님은 심 스웨틀라나의 젊음과 창의성, 책임감에 마음이 끌려 얼마 지나지 않아 스웨틀라나에게 '영어교육 방법론 부서' 담당을 맡겼다. 그녀는 영어 교육에 관한 다양한 교수법을 학교 동료 교사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점이 재미있었다고 한다.

2017년 제6학교에 부임한 후 학교를 옮길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여기는 정말 하나된 가족 같은 곳이에요. 동료들이 너무 좋고, 서로 돕는 분위기입니다. 제가 교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 해준 곳이 바로 이 학교예요. 그래서 그만둘 생각은 없고 이곳에서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등 및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년의 학생들을 가르쳤다. 또한 처음부터 6반의 지도교사로 활약했는데, 그 당시의 학생들은 현재 대학교 2학년을 다니고 있다.

현재 그녀는 부교장으로서 10학년 학생들에게만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그녀에게 2학년 때부터 배우고 있는데, 이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아주 흥미롭

다고 한다.

그녀는 영어교사이자 교감으로서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을 가장 큰 보람으로 삼고 있다. "가르치는 일은 결과가 바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나,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가르쳤던 아이들이 10학년이 되어 자신만만하게 시험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감격스럽죠. '내가 이 아이들에게 튼튼한 기초를 닦아 줬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요"라고 스웨틀라나 부교장은 고백했다.

그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학생들이 시도도 해보지 않고 변명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주 아이들에게 "그건 변명이 될 수 없어" 또는 "그건 납득이 안 가"라고 말한다. 그녀에게는 변명보다 시도 자체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저는 아이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설명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안 되니까'라는 변명이 아니라, 스스로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게 중요하죠."라고 말했다.

그녀가 부교장직을 맡은 지는 2년이 되었다. 그녀는 부교장으로서 심리교육 클래스와 진로 지도를 담당하고 있다. 학생들이 교육자를 좋은 직업으로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직업을 자신의 미래로 선택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진로지도와 관련한 많은 업무가 어느 정도 체계화되어 현재 사할린 학교들에서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많다고 전했다.

아침 8시에 학교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스웨틀라나는 매우 바쁘다. 퇴근 시간도 자주 늦어진다. 학부모

들과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때도 있고, 새로운 기획을 작성할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다.

그래서 자유 시간에는 활동적인 것을 좋아한다. 특히 운동하는 시간을 즐긴다. "운동은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데 최고예요"라고 그녀는 단언한다. "스트레칭이나 그룹 헬스 트레이닝을 하면 머리도 식고, 스트레스도 풀리죠. 주말이면 두 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해요. 10대인 아이들은 엄마의 관심이 더 필요하거든요. 맏딸은 12살, 막내는 10살인데 아이들과 시간을 함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스웨틀라나는 부모에게서 받은 배려와 사랑을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전해주며 사랑을 심어주고 싶다고 한다. 엄마와 할머니, 할아버지의 관계를 지켜보는 딸들도 이를 통해 소중한 인생을 배워 나가고 있을 것이다.

최근 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어 이번 교사의 날 행사(이번에 학교에서는 10월 3일에 진행한다고 함)를 준비할 일이 많다고는 하지만, 학생들과 함께하는 이번 행사 또한 즐거운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는 말을 전하며 이야기를 마쳤다.

배순신 기자

정정합니다!

본지 지난 2025년 9월 26일호 '막내 아들 덕분에 천직을 찾은 김 이리나 원장, 20년을 교육에 바치며'란 기사에서 김 이리나를 이 이리나로 정정합니다.

본사 편집부

이모저모

'포베다(승리)' 열차의 종착역, 사할린의 코르사코브역

사할린에서 <포예즈드 포베디(승리의 열차)> 독특한 박물관의 활동이 마무리된 가운데 열차 전람회는 움직이는 박물관으로서 대조국전쟁의 핵심 사건들을 설명해주었다.

이 열차 노선의 첫째 역은 흄스크역으로 9월 16일에 도착했고, 다음 네웰스크역에는 9월 17일에, 토마리에는 9월 18일에, 포로나이스크역에는 9월 19일에, 스미르니흐역에는 9월 20일에, 티모브스코예역에는 9월 21일에 도착했다. 이후 노글리키역에는 9월 22일에, 돌린스크역에는 9월 23일에 도착, 유즈노사할린스크역에 '승리의 열차'는 9월 24일 - 26일간 정차했다. 마지막 종착역은 코르사코브역이 되었다. 움직이는 전람회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9월 27일(토)과 28일(일) 무료 관람권이 주민들에게 단시간에 배포되었다.

<승리의 열차>는 단순한 박물관이 아니다. 시간의 틈으로 가는 정서적 여행이다. 10개의 주제별 객차는 전쟁 전의 시대부터 전쟁 승리의 날까지를 방문객들에게 안내한다.

전람회는 일반적으로 밀랍인형 대신 사실적인 묘사로 깊은 인상을 남기고, 당시의 의상을 입은 정교하게 제작된 조형물에 특수효과와 입체적인 음향, 홀로그램의 효과를 더했다.

이곳에서 방문객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참전병들의 감동적인 순간과 아전병원의 힘겨운 일상을 볼 수 있다.

<승리의 열차>는 세계 최초 철도 물임형 박물관으로서 400m²의 전시 공간은 155개의 전시물이 진열돼 있으며, 수십 개의 역사 전시물과 멀티미디어 구역이 자리하고 있다.

이 기획의 특별한 중요성은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50대의 비디오 프로젝트, 18개의 영상화면, 12대의 터치스크린, 전투 장면과 평화로운 일상을 재현하는 영상과 음향의 효과로 감동을 더해주면서 철도 박물관을 통해 역사적 승리의 사건을 더 강력하게 기억에 남도록 했다는 점이다. 이 기획은 '넵스키 바탈리스트'팀의 전문가들이 추진하고, 러시아 철도청과 러시아 연방 과학 및 고등교육부의 지원으로 추진되었으며, <승리의 열차>는 자라나는 세대

에게 자신의 눈으로 전쟁의 참상을 보고, 평화를 얻기 위해 치른 고귀한 가치를 인식하게 하는 독특한 타임머신이 되었다.

철도박물관은 포예즈드포베디.러시아 연방(поездпобеды.рф.) 기획 사이트에서 영상을 통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Последней остановкой поезда «Победы» на Сахалине стал Корсаков

В Сахалине завершил работу уникальный музей «Поезд Победы». Экспозиция разместилась прямо в движущемся составе и рассказывает о ключевых событиях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Первой точкой маршрута стал Холмск — поезд прибыл туда 16 сентября. Затем он отправился в Невельск (17 сентября), Томари (18 сентября), Поронайск (19 сентября), Смирных (20 сентября) и Тымовское (21 сентября). После этого экспозицию встретили жители Ноглик (22 сентября) и Долинска (23 сентябр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оезд Победы» пробыл три дня — с 24 по 26 сентября. Завершающей остановкой стал Корсаков. Интерес жителей к выставке оказался настолько велик, что все бесплатные билеты на субботу и воскресенье, 27 и 28 сентября, разобрали в считанные минуты.

«Поезд Победы» — это не просто музей, а эмоциональное путешествие сквозь время. Десять тематических вагонов переносят посетителей от предвоенных лет до дня Победы. Экспозиция впечатляет своей реалистичностью: вместо обычных восковых фигур — тщательно проработанные скульптуры в одежде той эпохи, окруженные спецэффектами, объемным звуком и голограммами. Здесь можно увидеть и трогательные моменты возвращения солдат домой, и тяжелые будни полевого госпиталя.

Напомним, «Поезд Победы» — первый в мире иммерсивный музей на рельсах. На площади в 400 кв. метров размещены 155 скульптур, десятки исторических экспонатов и мультимедийные зоны. Особая ценность проекта — в его мультимедийном сопровождении: 50 видеопроекторов, 18 видеостен и 12 тач-столов, а также световые и звуковые эффекты, воссоздающие картины сражений и мирной жизни.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экспозиция производит сильное, запоминающееся впечатление.

Инициаторами проекта стали специалисты из команды «Невский баталист», а поддержку оказали РЖД и Министерство науки и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РФ. «Поезд Победы» стал своеобразной машиной времени, позволяющей молодому поколению увидеть войну глазами её свидетелей и осознать, какой ценой был завоёван мир.

Желающие могут совершить виртуальный тур на

сайте проекта поездпобеды.рф.

월고그라드에서 <가정의 불빛> 러시아 경연 결승, 사할린 가족 참가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월고그라드에서 열린 <가정의 불빛> 전 러시아 경연 결승전에 사할린주를 포함해 전국 8개 지역에서 24개의 가정팀이 참가했다.

참가한 가정들 중에는 특수군사작전 참전용사의 가정도 있었다. 경연 참가자들은 며칠에 걸쳐 숙련된 솜씨와 생존의 습성, 무인기 조정, '수호자의 길'부문에서 전술 의료, 사격의 기술을 한껏 발휘했다. 그 외에도 예술적인 면을 선보이고, 지역에서 군사전술 게임에 참가했는데 사할린 참가팀이 포함된 '아흐투바'팀이 특수 임무를 완수하고, 팀 단결과 전략적 사고를 발휘하여 이 부문에서 마침내 우승을 차지했다. 9월 25일에 열린 결승 폐막식은 '스탈린그라드 비트와' 파노라마 박물관에서 개최되었다. 러시아 연방 국방부 차관 겸 '조국 수호자'재단 대표인 안나 찰윌료와는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기량과 실력과 용맹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공동으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한 행사로서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가정의 불빛' 경연은 가정적 유대의 공고함을 통해 또 하나 현대 사회의 중요한 가치를 말해주었고, 치러진 경쟁은 세대 간의 연속성과 국가의 역사에 대한 기억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냈다.

경연 최종결과로는 월고그라드주의 '아모브썸'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이 행사는 '조국의 수호자' 국가재단과 '최고들의 활동, '윤아르미야'활동, '워인'센터, 러시아 연방 국방부가 주최했다.

Сахалинцы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о Всероссийской игре «Семейная зарница» в Волгограде

В Волгограде завершились финаль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Всероссийской игры «Семейная зарница», в которой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24 команды из восьми регионов, включая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Среди участников — ветераны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и их семьи.

Участники соревнований на протяжении нескольких дней показывали мастерство и навыки выживания, управления беспилотниками, стрельбы и тактической медицины на «Пути защитника».

(8면에 계속)

<내 고향의 푸른 하늘> 사할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교류 35주년 기념전 개막

지난 9월 30일(화), 사할린주 미술 박물관에서 <내 고향의 푸른 하늘> 전시회가 문을 열었다. 이번 전시는 박물관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요 창작 단체인 <만수대>와 <백호>와의 교류 35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전시회에는 조선화, 도자기와 자수, 천연 소재 공예품 등이 전시된다. 많은 작품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예술가들이 창작한 것으로, 국가의 삶과 금강산 풍경, 평양 전경, 그리고 애국과 번영을 주제로 하고 있다.

개막식에서 블라디미르 노소브 러시아 외무부 유즈노사할린스크 대 표는 축사를 통해 "러시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 문화 교류는 우호적 관계의 토대"라고 강조했다.

또한 라이사 고로호와 미술박물관 초대 관장은 30여 년 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만수대>를 방문해 처음으로 직접 조선 작품 컬렉션을 선정했던 이야기를 전하며, 그때 마련된 박물관 컬렉션이 오늘날 공고한 문화적 연결을 증명하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날 <에트노스> 아동예술학교 듀엣의 단소 연주는 개막식 분위기를 더욱 환하게 조성했다.

전시회를 기획한 올가 하이 박물관 수석 연구원이 개막식 참가자들을 위해 첫 전시 안내를 진행하며, 민족 전통과 소비에트 클래식 미술의 영향이 결합된 현대 조선화의 특징과 전시 작품들을 소개했다. 전시회 제목은 한영 화가의 그림의 제목 <내 고향의 푸른 하늘>에서 가져왔다.

이날 행사에는 많은 사할린 동포들이 다녀간 가운데 오래 기억되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후문을 남겼다. 전시회는 10월 27일까지 계속된다.

(본사 기자)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사할린동포복지회관에 후원물품 전달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이민자네트워킹과 함께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을 찾아 노인들의 목욕봉사를 하는 한편, 직원들이 정성껏 모은 사랑의 후원 물품 및 기부금을 전달했다.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은 일제강점기 당시 사할린으로 강제징용돼 해방 이후에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다가 1992년 러시아 수교가 맺어진 후 영주 귀국한 사할린동포들이 생활하는 노인요양시설로 1999년 3월 2일 개관해 현재 사할린동포 73명이 생활하고 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이민자네트워킹는 재한외국인, 국적취득자, 국적회복자로 현재 18개국 63명이 청내 민원인 통역 안내 및 소외계층, 사회복지시설 등 지역사회 봉사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월 20일 제18회 세계인의 날에는 지역사회 봉사 활동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회장 정벤자마트씨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송소영 청장은 "오늘의 나눔이 지금도 역사적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에게 따뜻한 힘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단순한 나눔이 아닌 사회 곳곳의 어려운 이웃과 동행으로 이어지는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호일보)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보름달에게 / 이해인

당신이 있어
추운 날도 따뜻했고
바람부는 날에도
중심을 잡았습니다
슬픔 중에도 웃을 수 있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각이 진 내가
당신을 닮으려고 노력한
세월의 선물로
나도 이제 보름달이 되었네요

사람들이 모두 다
보름달로 보이는
이 눈부신 기적을
당신께 바칠게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

“불과 1백년 전만 해도 텔레비전은 세상에 나오지 않았습니 다. 1천하고도 8백년도 후반 즈음 처음 이 기술이 나온 건 맞는데, 이게 또 프로그램이 다양해야 활성화되는 걸 테고, 제대로 안방 극장으로 자리 잡은 지는 1백년도 채 되지 않았지요.

요즘이야 OTT가 다양해지면서 저 역시 이런 저런 채널을 이용하는 편인데요. 일단 저는 광고를 극도로 싫어하니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합니다. 아, 유튜브는 OTT가 아닌가, 그렇다면 다시!

일단 넷플릭스를 자주 들락거리는 편. 어제만 해도 거실 소파에 앉아 ‘마츠시마 히카리’의 연기에 흠뻑 젖을 수 있었지요. 사카모토 유지 극본의 ‘우먼’을 시청했거든요. 극작가 ‘사카모토 유지’의 작품이니 뭐, 말 다했조. 셰익스피어도 무덤에서 일어나 지금 ‘사카모토 유지’의 작품을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 만큼 끝내주는 작가가 일본에 있지요. 일본 부럽, 아무튼 ㄴ. 제 기준으로만 봐도 명작의 기준을 넘어서는 작가가 ‘사카모토’입니다. 저는 사카모토의 대본이라면 일단 두 번 생각하지 않고, 그 OTT를 가입부터 때리고 보는 편입니다. 왓차에는 더 다양하게 사카모토 유지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으니, 왓차 역시 끊지 않고 시청 중이지요. 이리다 보니 때로는 월 이용료가 아까울 때가 생깁니다. 한 달 내내 이용하지 않았을 때도 있었으니, 뭐. ‘으이구, 으이구, 아까워라, 내 돈, 내돈!’

아내는 프랑스 영화를 즐기는 편이니, 왓차는 필수! 더군다나 예능도 흠뻑 즐기는 편이니, 티빙과 웨이브도 이용을 하지요. 쿠팡 플레이는 어차피 무엇이든 배달을 시켜야 불안해지지 않는 세상이니, 자동으 로 가입. 최근에는 HBO 시리즈들을 잔뜩 들여와서, 리모콘과 저 역시 같은 마음으로 환호하며 흐뭇해하고 있는 중입니다.

텔레비전의 시대가 아닌 바야흐로 OTT의 시대를 맞이한 건 아무리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 전의 주인공 ‘달’을 논한다는 게 이렇게 삼천포를 향해 달려 오고야 말았네요. 아, 마쳐야 하는데…….

그러니까, 흠음, ‘달’은요. 달이야말로 우리 인류의 채널이자 OTT였잖아요. 떠난 님을 그리며 달에게 속삭이고, 그 떠난 님은 또 다른 님을 그리며 달에게 속삭이던 시대가 불과 1백년 전에도, 1천년 전에도 그리하였겠지요. 풍요를 상징하는 추석이라면 송편부터 떠올리시는 분, LA 갈비를 떠올리시는 분, 고스톱, 포커, 올해는 유난히 긴 일정이라 해외로도 많이들 빠져나가시던데……. 어디서든 편한 한 시간 보내세요. 보름달 한 번 보며 소원 남기시구요. 오직 자신만 아는 비밀의 소원을. 즐거운 추석입니다, ㄴ!”



광복 80주년 맞아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러시아지역 독립유공자

현재 한국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는 노령계열 175명이며 그중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독립유공자 137명이다.

김 규면

관리번호	80032	한자	金圭冕
성명	김규면	성별	남
이명	金奎冕, 金周冕, 南七	생년월일	1969-02-02
생년월일	1880-03-12	사망년월일	1969-02-02
본적	함경북도 경흥 上下 泰陽 494		

공훈록

함북 경흥(慶興) 사람이다.

서울 배재학당(培材學堂)과 한성사범학교(漢城師範學校) 등을 졸업하였고, 1907년 신민회(新民會)에 가입하여 신교육운동에 참여하였다. 일제의 한국강점 후 기독교에 입교하여 목사가 되었으며, 1913년 조선총독부의 포교규칙(布教規則)을 승인하는 영국과 미국 선교사들의 방침에 저항하였다.

1919년 3·1운동 후 북간도에서 독립교회(獨立教會) 성리교(聖理教)를 창립하였으며, 성리교의 조직과 자금을 기반으로 중국 왕청현(汪淸縣) 춘화사(春華社)에서 대한신민단(大韓新民團)을 조직하고 단장으로 선임되어 500여 명의 부하를 이끌고 흑정자(黑頂子) 일대 나자구(羅子溝)와 초모정자(草帽頂子)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그 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新韓村)으로 거점을 옮겨 이동휘(李東輝)의 한인사회당(韓人社會黨)과 대한신민단을 합동하여 한인사회당 부의장 겸 군사부위원장으로 사회주의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전쟁 시 고려빨치산군대 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프리아무르주 군정의회 전권위원으로 전선 후방의 조직 및 지도를 총괄하였다. 또한 신민단 의사부장(議事部長) 김춘범(金春範)으로 하여금 이동휘(李東輝)와 함께 나자구지방에 무관학교 설립계획을 추진하고 한인청년들의 군사훈련을 조련하였으며, 동년 11월 중순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용(李

鏞)·김좌두(金佐斗)·김하석(金夏錫)·김만겸(金萬謙) 등과 함께 독립단(獨立團)을 조직하고 신한촌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1920년 4월 일본군이 불세비키 조직 심멸 및 ‘불령선인(不逞鮮人) 토벌(討伐)’이란 명목으로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을 비롯한 한인 밀집지대를 기습하여 한인조직을 파괴하고 무차별 학살을 감행하는 이른바 4월 참변(慘變)을 자행하였다. 이 4월 참변으로 인해 독립단 단장 최재형이 일본군에 의해 피살되자, 그는 독립단을 해산하고 쌍성(雙城) 방면으로 거점을 옮겨 무장항쟁을 준비하였다.

1920년 10월 러시아 니콜스크-우스리스크지방으로 이동하여 한인무장부대 혈성단(血誠團) 명예단장으로 선임되어 무력투쟁을 위한 준비를 하였고, 동월 동만(東滿)에 있는 대한의민회(大韓義民會)·대한국민회(大韓國民會)·대한광복단(大韓光復團)을 병합하여 총판부(總辦府)를 조직하고 단장으로 선임되어 활동하였으며, 12월에는 노령(露嶺)의 한인대표를 모아 이만에 공산당 근거를 설치할 것을 협의하는 한편, 코민테른 제2차대회에 한인사회당 대표자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여 선언서에 서명하였다. 1921년 노령 니콜스크-우스리스크지방에서 정재관(鄭在寬)과 창해청년단(滄海靑年團)을 조직하고 단장으로 활동하였고, 3월 러시아 마사노프에서 대한의용군(大韓義勇軍) 전한군사위원회 결성에 참여하였으며, 코민테른 자금 가운데 4만원을 수령하여 대한의용군 편제 및 보급에 투자하였다. 동년 5월 한인 무장부대의 통일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한의용군 군사위원회를 대표하여 고려혁명군정의회(高麗革命軍政議會)와 맞서 싸웠으며, 7월에 이만에서 대한의용군 군사위원회를 재결성하고 위원장이 되었다. 1922년 9월 노령 한인무장부대가 고려혁명군(高麗革命軍)으로

통합될 때 참모부원으로 활동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시베리아 내전을 종결지는 연해주 해방전투에 러시아 적군(赤軍)과 연계 속에 한인연합부대 군사위원으로 참전하여 백군을 구축(驅逐)하였다.

1923년 중국 상해(上海)에서 국민대표회(國民代表會)의 창조파(創造派)에서 군무총장으로 내정되었으나 이에 참가하지 않고 중국 국민혁명에 참여하여 중국노동자 파공운동(罷工運動)에 가담하면서 북벌전쟁에 동지들을 동원하였으며, 1924년 5월 대한민국 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 교통차장 및 교통총장 대리에 선임되었다. 1924년 상해에서 윤자영(尹滋英) 등이 결성한 청년동맹회(靑年同盟會)의 간부로 활동하면서 1925년 5월 상해대학학생연합회(上海大學學生聯合會)가 배외운동(排外運動) 차원에서 동맹휴교(同盟休校) 등 대대적인 시위운동을 계획하자, 윤자영과 함께 상해대학학생연합회를 방문하여 적극 후원할 뜻을 표하고 학생연합회에서 작성한 전단을 상해 프랑스조계에 살포하였다. 1927년 장개석(蔣介石) 반공쿠데타로 국민혁명이 좌절된 뒤 연해주(沿海州)로 돌아와 블라디보스토크의 한 서점에서 동양서적 판매원으로 일하는 한편, 빨치산 농업조합의 생산활동을 지원하였다. 1931년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과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 재조직사건에 관여하여 검거될 당시 탈주하였으며, 1934년부터 모스크바 그르임 등지에서 생활하다가 1969년 사망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朝鮮民族運動年鑑 116·189面
- 朝鮮獨立運動(金正明) 第2卷 828面
- 朝鮮獨立運動(金正明) 第3卷 5
- 묘지
- 러시아 모스크바

(편집: 이철수)

(서울에서 허진원)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Синее небо моей Родины»: на Сахалине открылась выставка, приуроченная к 35-летию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КНДР



30 сентября в Сахалинском областном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музее состоялось торжественное открытие выставки «Синее небо моей Родины». Экспозиция приурочена к 35-летию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узея с ведущими творческими объединениями КНДР «Мансудэ» и «Пэкхо».

В экспозиции представлены произведения живописи в стиле чосонхва, керамики и фарфора,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вышивки и аппликации природными материалами. Многие работы созданы заслуженными деятелями искусств КНДР и отражают жизнь страны, знаменитые пейзажи Кымгансана, виды Пхеньяна, а также темы патриотизма и процветания.

На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с речью выступ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Д Росси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ладимир Носов. Он подчеркнул важность культурного обмена как основы дружественны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КНДР.

Также перед гостями выступила первый директор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музея Раиса Горохова, которая поделилась воспоминаниями о том, как более трёх десятилетий назад было положено начало корейской музейной коллекции, ставшей сегодня одним из свидетельств прочных культурных связей.

Культурную программу мероприятия дополнило выступление дуэта из ДШИ «Этнос», исполнившего композицию на традиционных корейских флейтах дансо.

Куратор выставки – главный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музея Ольга Хай – провела для гостей экскурсию, рассказав об особенностях современной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живописи чосонхва, которая сочетает национальные традиции с влиянием советской академической школы. Название выставке дала картина художника Хан Ён «Синее небо моей Родины».

Выставка вызвала живой интерес у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орейской общины Сахалина и, по признанию посетителей, подарила им массу ярких впечатлений.

Выставка продлится до 27 октября.

Дмитрий Погудаев

Курск стал побратимом Кэсона

Городом-побратимом российско-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Курска стал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город Кэсон.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назад Курское городское собрание приняло решение об установлении партнерских отношений с городом Кэсон в КНДР.

Кэсон (개성시) – это самый южный город КНДР и один из немногих открытых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В прошлом город был столицей коре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Корё.

Кэсон известен также как центр по выращиванию и обработке женьшеня.

Населени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Кэсона – чуть более 300 тысяч человек (население российского Курска более 430 тысяч человек).

<https://t.me/saramkor>



В Корсакове состоялся межнациональный фестиваль «В семье единой»

В минувшую субботу, 27 сентября, в Корсакове состоялся межнациональный фестиваль «В семье единой», организатором которого является О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О том, как прошел праздник сообщает телеграм-канал «Мой Корсаков».

Праздник, посвященный дружбе и культурному разнообразию народов Сахалина, собрал жителей округа, чтобы подарить им уникальную возможность окунуться в красочный мир традиций.

С каждым годом этот замечательный фестиваль открывает для нас что-то новое, однако важнейший урок, который он нам преподносит – это урок дружбы. Ведь именно дружба и любовь являются основными человеческими ценностями, - отметила Наталия Куприна, мэр Корсаковского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округа.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шло



при поддерж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опросы сохранения уникальной истории и традиций региона находятся в зоне постоянного внимания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Концертная программа стала ярким калейдоскопом творчества. Зрители тепло встречали выступления коллективов, представляющих русскую и корейскую культу-

ры. Особый колорит внесли показательные выступления спортсменов из клуба «Единство».

Фестиваль «В семье единой» – это гармоничное сплетение корейской и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 погружение в мир традиций и обычаев двух народов. Это символ дружбы, взаимопонимания и культурного богатства Сахалина.

К 80-летию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Письма с Сахалина

Предлагаем Вашему вниманию девятое письмо с комментариями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Письма с Сахалина: забытый голос предков».

Редколлегия

Привет, Чонсон (중섬)!

Время неумолимо идёт, и вот уже тридцать лет прошло с тех пор, как мы расстались. Не могу выразить словами, как много страданий и забот выпало на долю вашей матери за эти долгие годы на родине.

Ваш отец в добром здравии на далёком Сахалине, поэтому не стоит беспокоиться о нём.

Я прослушал письм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читано на корейской радиостанции 26 июля в 22:50.

Если сможете доказать, что ваш отец проработал на Сахалине 25 лет, то будете получать пенсию (1) в размере 120 вон (2). Учитывая обстоятельства, я подумываю о том, чтобы остаться ещё здесь и продолжать работать, пока не разрешится вопрос о моём возвращении на родину. Я живу здесь, не испытывая зависти к другим.

Твоего младшего брата здесь зовут Вася (와샤) (3). Он родился в 1956 году, окончил 9 классов в возрасте 17 лет и хочет стать учеником автомеханика. Мне есть много что сказать, но я на этом останавлиюсь.

Из Корсакова,
Ли Док Им (李德林)
Перевод: Ин Му Хак

Комментарии:

(1) Автор письма употребил слово «пенсия» (пенси) 年金, записав хангылем русское слово. Для корейцев, которые писали на хангыле (обычно с большим количеством иероглифов), часто характерно употребление слов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записанных хангылем. Например, в дневнике Лю Си Ука «Полмесяца на полевом стане», автор часто упоминает русские слова «зарплата», «аванс», «бухгалтер».

(2) Возможно, автор имеет в виду возмещение, которое могли получать некоторые корейцы, подвергшиеся мобилизации в японский период. В 1965 г. Южная Корея и Япония заключили «Договор об основных отношениях между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и Японией».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этим договором Япония выплачивала Южной Корее 300 млн долларов в качестве репараций (а также предоставляла 500 млн долларов в качестве кредита на льготных условиях) за вред, причиненный в период колониального господства, а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в свою очередь, отказывалась от любых претензий к Японии от имени всех южнокорейских граждан. Считается, что большую часть этих репараций Южная Корея потратила на 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страны, а не на выплаты своим пострадавшим гражданам. Компенсации выплачивались, но не в достаточном количестве, и даже не в том размере, в каком были получены от Япон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до сих пор подвергается за это критике внутри страны.

(3) Поскольку имя у второго сына автора письма русское, он, скорее всего женился на русской женщине. Некоторые корейские мужчины, мобилизованные на Сахалин, оставляли на родине жену и детей, но отчаявшись вернуться на родину после 1945 г., женились второй раз на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ках, японках или русских.

Юлия Дин, к.и.н.

Новости от создателей фильма «Местные»

Интерес к документальной ленте «Местные» режиссера Антона Доки и продюсера Сергея Ха, премьера которой состоялась 12 августа, продолжает расти.

Фильм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ю 100 минут 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ах был снят на личные средства авторов. Для получения прокатного удостоверения и создания субтитров на английском и корейском языках требовалась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поддержка. Узнав об этом, Ассоциац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АСК) под председательством Ко Ен Сун инициировала сбор пожертвований в фонд картины.

Собранные средства были переданы создателям фильма на вечер, посвященный корейскому празднику Чусок (Дню благодарения). Мероприятие посети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активисты АСК и почетные гости: глав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канцелярии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г-н Кук Чан Хен и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г-н Чжон Сон Хун. Участники вечера тепло встретили режиссера Антона Доку и выразили надежду на новые показы фильма.

Как сообщил нашей редакции продюсер Сергей Ха, в октябре благодаря поддержке общественников фильм увидят жители нескольких районов Сахалина:

· 4 октября — Поронайск (кинотеатр «Мир»).

· 12 октября — Углегорск (ККЗ «Авангард»).

· 19 октября — село Правда Холмского района (Дом культуры).

Также показы ожидаются в Долинске и Аниве.

Кроме того, ленту представят на мероприятиях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 5 октября — в День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в Областной библиотеке (организатор — ЮСМООК).

· 17 октября — для участников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освященной 80-летию освобождения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организатор — АСК).

Уже есть заявки и на ноябрь. Картины также ждут за пределами острова.

Следить за новостями фильма и сбором средств можно в социальной сети VK: достаточно ввести в поиске «документальный фильм Местные».

Наш корр.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Кабинет министров одобрил закон о реорганизац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30 сентября Кабинет министров РК одобрил законопроект о реорганизац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он был утверждён на пленарном заседани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На том же заседании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которое прошло под председательством президента Ли Чжэ Мёна, были одобрены законопроекты о переименовании постоянных парламентских комитетов и упразднении Корейского комитета по вопросам связи и 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й.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законом о правительстве, с октября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прокуратура разделится на два органа – Обвинительно-апелляционное управление и управление по расследованию тяжких преступлений. Первый орган будет подчинён министерству юстиции, а второй – министерству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и безопасности. Со 2 января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министерство планирования и финансов будет разделено на министерство финансов и экономики и планово-бюджетное управление, которое будет подчинено канцелярии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Другие министерства будут переименованы и реструктурированы уже с 1 октября. Министерство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торговли и энергетики будет переименовано в министерство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торговли. Министерство экологии станет министерством климата, энергетики и экологии. Ему будут переподчинены большинство энергетических департаментов нынешне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торговли и энергетики. Министерство по делам женщин и семьи будет переименовано в министерство по делам гендерного равенства и семьи, статистическое управление – в национальное управление данными, а агентство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й собственности - в управление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й собственности при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е. Должность вице-премьера по социальным вопросам, которую совмещал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будет упразднена. Однако министр финансов и экономики, а также министр науки будут по совместительству исполнять обязанности заместителей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Законопроект об упразднении Корейского комитета по вопросам связи и 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й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создание нового органа - комитета по вопросам связи, медиа и 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й.

РК и Япония активизируют «челночную дипломатию»

30 сентября президент РК Ли Чжэ Мён и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Японии Сигэру Исиба встретились в Пусане. Это была третья по счёту встреча лидеров двух стран после вступления Ли Чжэ Мёна на пост президента в июне этого года. В ходе встречи, продолжавшейся 76 минут, обсуждались вопросы активизаци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в различных областях. В частности, Ли Чжэ Мён призвал к активизации «челночной дипломатии», поскольку РК и Япония, являясь соседями, должны «встречаться друг с другом и строить отношения, основанные как на эмоциональной, так и на экономической близости». Он подчеркнул важнос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области развития регионов, отметив, что обе страны сталкиваются с проблемами, связанными с концентрацией населения в столичных районах. Сигэру Исиба отметил, что частые обмены опытом покажут, «насколько близки наши две страны на самом деле». Он призвал к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по таким общим вопросам как старение населения, низкая рождаемость, энергетическая самодостаточность и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ая безопасность, предложив возобновить работу совместного комитета по науке и технологиям.

Аэропорт Инчхон готовится к росту пассажиропотока

По подсчётам корпораци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аэропорта Инчхон, в выходные дни по случаю осеннего праздника урожая и поминовения предков Чхусок со 2 по 12 октября аэропортом воспользуются около 2 млн 450 тыс. пассажиров. Прогнозируемое среднесуточное число составляет примерно 223 тысячи человек, что на 2,3% больше, чем в пик летнего сезона этого года. Данный показатель превысит уровень прошлого года на 11,5% и станет максимальным за всю историю аэропорта. Самым загруженным днём станет 3 октября, когда пассажиропоток может достичь 239 тысяч человек.

В Сеуле прошел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естиваль фейерверков

27 сентября в парке Ханган в сеульском районе Ёйдо состоялся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естиваль фейерверков-2025. Мэрия Сеула приняла комплексные меры по обеспечению безопасности эт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собирающего более миллиона человек. Сетевые магазины шаговой доступности в районах Ёйдо, Ёнсан и Панпхо провели специальную подготовку к фестивалю. CU увеличила в 100 раз объём заказов на согревающие товары, в числе которых горячая еда, грелки и пледы, GS25 будет обеспечивать достаточный запас популярных товаров и готови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персонал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А 7-Eleven уделяет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пополнению запасов товаров, связанных с фильмом K-Pop Demon Hunters, поскольку фестиваль фейерверков посещает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интнанных граждан.

RKI

Министр объединения РК: КНДР вошла в тройку стран, способных нанести удар по США

Находящийся с визитом в Германии министр объедин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Чон Дон Ён сделал резонансное заявление о военных возможностях КНДР. По его словам, Пхеньян превратился в одно из трех государств мира, наряду с Китаем и Россией, обладающих потенциалом для нанесения удара по территории США. Говоря об этом, Чон имел в виду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несколько разновидностей межконтинентальных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ракет, испытания которых Северная Корея уже ранее проводила.

Выступая на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в Берлине, Чон отметил, что этот факт следует "с холодной головой" признать и учитывать в политике в отношении КНДР. О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стратегическое положение"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егодня принципиально отличается от ситуации семилетней давности, когда прошел американо-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саммит в Сингапуре. По мнению министра, шанс урегулировать ядерную проблему был упущен в 2019 году на встрече Ким Чен Ына и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в Ханое.

Чон также указал, что Пхеньян сам заявляет о достижении "необратимой гегемонистской позиции" в сфере ракетных разработок после испытания межконтинентальной ракеты "Хвасон-19", способной достичь территории США. В то же время министр отметил, что если КНДР действительно нацелена на экономические реформы и открытость, то путь для

нее возможен лишь через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Южной Кореей.

Затронув тему возможной новой встречи Ким Чен Ына и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министр объединения РК напомнил, что лидеры выражали желание провести диалог. Однако, по его словам, рассчитывать на экономическую помощь от Вашингтона Пхеньяну не стоит даже в случае заключения сделки в сфере безопасности.

Заявление Чон Дон Ёна, который известен как активный сторонник налаживания конструктивных отношений с Пхеньяном, вызвало резонанс и является весьма смелым для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чиновника. Дело в том, что его оценки расходятся с тем, как воспринимает Вашингтон ракет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Пхеньяна. Если министр объединения РК Чон Дон Ён фактически признал, что Северная Корея уже вошла в число стран, способных нанести удар по территории США, то американские военные и разведывательные структуры высказываются осторожнее. В Вашингтоне подчеркивают, что, хотя Пхеньян успешно испытывал межконтинентальные ракеты большой дальности, ключевая технология - надежный повторный вход боеголовки в атмосферу - пока не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на, а значит, говорить о полностью готовом и проверенном ядерном потенциале КНДР преждевременно.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Власти Южной Кореи продолжают ликвидировать последствия пожара в дата-центре

Президент потребовал принять меры, а эксперты предупредили об опасности кибератак

Президент Ли Чжэ Мён на заседании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назвал произошедшее "трудно вообразимой и объяснимой ситуацией" и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часть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лежит и на нем самом - за то, что проблемы не были выявлены заранее. Он поручил всем министерствам проверить наличие и выполнение инструкций по безопасности, подготовить планы усиления защиты и представить их к следующему заседанию, которое намерен проверить лично. "Необходимо максимально быстро восстановить системы и свести к минимуму неудобства для граждан", - заявил он.

Ли особо отметил риск кибератак и фишинговых схем, которые могут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перебоями в работе сервисов. Финансовые надзорные органы уже предупредили о возможных попытках рассылок в СМС поддельных ссылок от имени госструктур. Министерство внутренних дел добавило,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е направляет гражданам сообщений с приложениями или ссылками. Национальная разведслужба повысила уровень киберугрозы с "внимания" до "осторожности" в преддверии саммита АТЭС в конце октября.

Реакция и итоговая оценка

Политическая реакция последовала незамедлительно. Оппозиционная партия "Сила народа" создала рабочую группу по реагированию на кризис, в которую вошли депутаты профильных парламентских комитетов по науке, ИКТ, управлению и разведке. В партии заявили, что группа займется контролем за скорейшим восстановлением сервисов, расследованием причин инцидента и подготовкой мер для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подобных происшествий.

По данным Центрального штаба по чрезвычайным ситуациям, к вечеру 30 сентября удалось восстановить почти 90 сервисов, включая портал госуслуг Gov24 и почтово-банковские сервисы. Однако власти признают, что для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96 систем, напрямую поврежденных огнем, и их переноса в новый дата-центр в Тэгу и потребуются около четырех недель.

Пожар стал серьезным ударом п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IT-инфраструктуре: сотни сервисов, включая ключевые, вроде базы данных ветеранов и портала жалоб граждан, оказались парализованы. Однако речь не идет о полном крахе или безвозвратной утрате данных - основные массивы информации сохранились, но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займет недели и даже месяцы. Большая часть систем в итоге вернется в строй, пусть и с отдельными точечными потерями.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Эксперты из 45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обсудили на Сахалине практики по развитию кадрового потенциал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стоялся очный этап экспертной сессии «Формирование условий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молодежи в регионе», которая является заключительным мероприятием «Акселератора регионов» - программы, посвящённой созданию и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ю механизмов поддержки молод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Организатором выступает Центр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Острова» — проект Росмолодёжь.

Программа «Акселератор регионов» была запущена в начале августа в онлайн-режиме и направлена на формирование карты сервисов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молодежи в регионах. В течение почти двух месяцев эксперты, представляющие органы власт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и бизнес, обсуждали механизмы,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помощь молодым специалистам в раскрытии собственного потенциала с помощью имеющихся инструментов. В рамках очного этапа участники из 45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прибыли на Сахалин. Модератором встречи выступил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Нам важно, чтобы талантливые ребята оставались на островах, строили здесь карьеру и создавали семьи. Сахалин находится на стыке стран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и является участником мирового рынка по нефтегазовой и рыбодобывающей отраслям. И для того, чтобы быть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ыми нам нужны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е специалисты, которые будут работать на проектах. Мы развиваем наш университет, сотрудничаем с ведущими вузами, научными институтами и крупным бизнесом. И все это направлено на то,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подготовку кадров с учетом потребностей экономики, чтобы впоследствии выпускники занимали рабочие места во всех наших базовых отраслях,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егодн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кантны 6 тысяч рабочих мест, в том числе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ых. Основа экономики региона — шельфовые нефтегазовые проекты, добыча угля, рыбная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Создается транспортно-логистический хаб на базе Корсаковского морского порта, открыт первый в стране дропорт для беспилотной авиации. На базе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строится кампус мирового уровня СахалинТех.

В ходе экспертной сессии обсудили ключевые проекты, реализуемые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ля подготовки специалистов и создания кадрового резерва. Профориентационная программа в регионе начинается еще со школы. При поступлении в учреждения среднег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и вузы «Проводники карьеры» предлагают разработать траекторию обучения и последующего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или сервису «Карьера. Дом. Семья», который предлагает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м специалистам из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узнать о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е, мерах поддержки для молодых семей (включая льготную ипотеку), образовании 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и.

Еще одно направление — работа с участниками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Один из членов сессии, участник региона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Геро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Сергей Попов предложил запустить новый проект по работе с военнослужащими еще на этапе увольнения с военной службы.

- Увольнение — достаточно долгий процесс, может занять до полугода. Я предлагаю начинать профориентационную работу с бойцами уже на этом этапе, чтобы сразу помочь определиться с профессией и дальнейшей траекторией для успешного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 сказал Сергей Попов.

Глава региона идею поддержал. Более того, пилотный проект уже был пробно запущен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и получил положительные отзывы.

Наконец, советник руководителя федеральн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Олег Макаров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совместные встречи с экспертами из разных регионов важны для обмена опытом и эффективными практиками. Это позволит сформировать траекторию для дальнейшей работы и укрепить кадровый потенциал страны.

- Сегодняшняя встреча стала ключевым этапом для выработки новых подходов к поддержк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молод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Важно, чтобы каждый регион имел концептуальную модель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молодежи и рабочие инструменты по её реализации. Сегодня на Сахалине мы работаем над лучшими практиками в этой сфере — это и развитие сообщества проводников карьеры, перезагрузка планов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Программа «Формирование условий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молодежи в регионе» помогает создавать условия для реализации амбициозных планов и укрепления кадрового потенциала нашей страны, — отметил Олег Макаров.

- Сахалин — центр компетенций, который объединяет разные регионы и не только прорабатывает вопросы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но и формирует новую культуру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между регионами. Работа в командах — это синергетический эффект для страны. Благодаря все регионы, которые делятся практиками и работают над созданием совместных решений, - подытожила Депута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РФ, руководитель клуба Лидеров России «Эльбрус» Татьяна Дьяконова.

Отметим, мероприятие состоялось в период проведения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молодёжного форума «ОстроВа» платформы Росмолодёжь.Форумы. Событие реализуется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Молодёжь и дети» и

объединило 620 человек, включая волонтеров, экспертов и участников из разны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и зарубежных стран. Торжественная церемония закрытия состоится 4 октября.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форума выступают Федеральное агентство по делам молодёжи (Росмолодёжь)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парк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оявились батуты и площадки с силовыми тренажерами

Сразу пять современных спортплощадок обустроили в городском парке в этом году. С лета работают четыре зоны с силовыми тренажерами, которые оценили любители и профессионалы воркаута и тяжелой атлетики. Теперь открылась еще батутная площадка, где все желающие в возрасте от 14 лет могут бесплатно оттачивать воздушные трюки.

Обновление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в парк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 результат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о Сбером. Благодаря договоренностям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с руководством банка в островной области реализуются льготные ипотечные программы для молодых семей и участников СВО, работает «Школа 21» по изучению цифр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и центр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развиваетс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для активного отдыха.

- У нас один из самых спортивных регионов — 70 процентов жителей ведут здоровый образ жизни. Сейчас у сахалинцев появилось больше возможностей тренироваться на открытом воздухе. Современные спортплощадки с высокклассны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 это подарок городскому парку от Сбера. Так работает социально ответственный бизнес, который стремится делать территорию региона лучше и комфортнее для людей,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овую зону с батутами на стадионе «Космос» губернатор посетил вместе с мэром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ергеем Надсадным. Четыре снаряда подходят для отработки воздушных трюков разной сложности. На площадке будет дежурить инструктор и помогать ребятам осваивать технику. Доступ открыт для подростков с 14 лет, для детей младше — строго под присмотром взрослых.

Одними из первых батуты опробовали ребята из танцевально-спортивного клуба «Сахданс».

- Мы приехали в парк на выступление и неожиданно попали на такое развлечение. Девчонкам очень понравилось! Лучшая разминка получилась, - поделилась руководителем коллектива Лариса Никитина.

Летом в парке — на стадионе и тропе здоровья — установили также четыре спортивные площадки, ставшие тренажерным залом на открытом воздухе.

- Новые площадки стали центром притяжения для южносахалинцев и гостей города. Особенно хочется подчеркнуть оснащение проекта. Здесь установлены уникальные и разнообразные тренажеры уличного исполнения. Их функциональность и доступность — значимы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потому выражаю благодарность Сберу за реализацию этой инициативы. Уверен, что этот проект обогатит спортивную жизнь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 отметил мэр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Оборудование с утяжелителями позволяет прокачать все группы мышц и обеспечивает прогрессию в нагрузках. Тренажеры произведены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среди них есть и редкие. Гравитрон, к примеру, помогает освоить подтягивания. Если это сложное упражнение не получается, можно выставить противовес, который облегчит работу. С ростом силы противовес можно уменьшать и переходить на турники.

Новые площадки пользуются популярностью, особенно в вечернее время и по выходным. На тренировки приходят спортсмены всех возрастов. Александру Бусаеву, бывшему тренеру по самбо и дзюдо, уже 71 год, но на турниках он даст фору любому студенту.

- На пенсии тоже веду здоровый образ жизни, чтобы молодёжь брала пример. Мои дети, семь внуков — все занимаются спортом, - поделился Александр Бусаев. Здесь на площадке можно проработать все мышцы и — большой плюс — на свежем воздухе. Если приходят новички, подсказываю им технику. Ведь в спорте, как и в медицине, главный принцип — не навреди.

Спортсмен-любитель Владислав Долгов рассказал, что раньше тренировался дома или во дворе, но теперь каждый выходной старается приходить в парк на тренажеры.

- Я занимаюсь тяжелой атлетикой и воркаутом больше для себя и для поддержания физической формы. Площадки в парке очень нравятся. Есть все, что нужно. Пришел, побегал, разогрелся — и на тренажеры. Очень удобно, - считает молодой человек.

Напомним, ранее Сбер также подарил светомузыкальный фонтан в парке, ставший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ью областной столицы.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начинает отопительный сезон

В большинстве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с 1 октября начнут подавать тепло в дома жителей. Вопрос о готовности объектов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к началу отопительного сезона обсудили в ходе заседани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од председательством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 течение года к зимнему сезону готовили 493 объекта, из них — 195 котельных, 22 тепловых пункта, 71 водозабор, 102 водопроводные насосные станции, 104 объекта водоотведения. Было заменено 14,3 км тепловых сетей,

20 км водопроводных сетей и 5,8 км сетей водоотведения. Кроме того, в эксплуатацию уже введены 10 газовых котельных, до конца года планируется ввести еще 17.

- Наша задача — обеспечить тепло и комфорт в каждом дом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ы провели масштабную работу по подготовке к зиме. Параллельно продолжаем модернизацию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Такая планомерная замена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зволяет снизить риск аварий в холодное время года.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или северным районам, где отопительный сезон начинается раньше. Это комплексный подход, который помогает нам обеспечивать стабильное теплоснабжение во всех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ах области,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Для бесперебойного начала отопительного сезона источники тепловой энергии обеспечены запасами топлива, в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сформированы аварийно-восстановительные бригады, а все важные объекты жизнеобеспечения обеспечены резервными источниками электроснабжения.

- Подготовка к отопительному периоду — это, без преувеличения, для нас задача номер один. С 18 сентября отопительный сезон начался в Охинском районе. Сейчас жители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ого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округа также получают тепло. Еще в восьми муниципалитетах — Ногликском, Углегорском, Макаровском, Тымовском, Томаринском, Корсаковском, Смирныховском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 с 1 октября начнется поэтапное подключение тепла. В Долинском районе — в первый день октября — отопление включают в селах Взморье, Советское и Стародубское, чуть позднее — с 5 октября — в селах Углезадовск, Быков, Сокол, Покровка и в самом Долинске, — рассказал министр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митрий Аристархов.

В остальных районах отопление дадут по температурному графику — когда среднесуточная температура воздуха опустится ниже восьми градусов Цельсия и сохранится на этом уровне в течение пяти дней подряд. График запуска индивидуален для каждой территории и зависит исключительно от фактических погодных условий.

Сообщить о проблеме, связанной с теплоснабжением, можно на горячую линию министерства ЖК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номерам 8-800-302-0065 со стационарного телефона или *0065 с мобильного. Кроме того, можно написать через мессенджер WhatsApp по номеру 89248844203 (только для сообщений, звонки не принимаются), указав при этом ФИО, адрес и проблему.

Больше 31 000 сахалинцев проверили репродуктивное здоровье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чался цикл выездных медицинских осмотров на предприятиях по оценке репродуктивного здоровья. Сотрудники трудовых коллективов в возрасте от 18 до 49 лет могут пройти обследование на рабочем месте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Здоровье для каждого» нацпроекта «Продолжительная и активная жизнь». На рабочем месте будет проведен первый этап диспансеризации, пр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специалист даст направление на дообследование.

Мужчины из поисково-спасательного отряда ГУ МЧС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дними из первых прошли диспансеризацию по оценке репродуктивного здоровья. Врач-хирург Центральной поликлиник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обрала анамнез и провела осмотр, после чего дала свои рекомендации по дальнейшим действиям.

- За прошедший час мы обследовали 8 человек, у одного выявлены некоторые подозрения, дальше он отправится на второй этап, где будут проведены спермограмма, УЗИ и другие обследования.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верить репродуктивное здоровье в рамках диспансеризации появилась у жителей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до этого времени многие из анализов можно было сдать только платно. Поэтому мы рекомендуем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такой возможностью всем гражданам, а особенно тем, кто планирует беременность, - рассказала врач-хирург Алина Громова.

Один из сотрудников поисково-спасательного отряда в будущем готовится стать отцом. Радостное событие вместе с супругой он планирует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лет. Он заранее начал вести здоровый образ жизни, следить за здоровьем. Репродуктивная диспансеризация дала старт для начала медицинского обследования, чтобы желанная беременность прошла без осложнений.

- Очень удобно проходить осмотр на рабочем месте. Мы постоянно заняты, возможность посетить поликлинику в будний день найти непросто. Поэтому самый большой плюс в выездной диспансеризации — это, конечно, экономия времени,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йти диспансеризацию по оценке репродуктивного возраста появилась с июля 2024 года. За 8 месяцев текущего года здоровье проверили больше 31 тысячи человек. В районах обратиться к врачам гинекологу, урологу или хирургу можно в ЦРБ, запись по номеру 1-300.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е подразделения и поликлиники обеспечены всеми необходимыми техническими средствами и кадрами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обследования.

Для приглашения специалистов на предприятие нужно написать заявление в ближайшую поликлинику. Также оставить заявку можно специалистам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общественного здоровья и медицинской профилактики по номеру 8 (4242)55-64-12 или на почту: socozmr@sakhalin.gov.ru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올해 재외동포 문학상 시 부문 대상에 '국경을 굽히는 일', 단편소설 대상에 '악어', 수필 대상에 '고사리' 당선

재외동포청, 시 소설 수필 3개 부문 13편 선정 발표

2025년 '재외동포 문학상' 시 부문에서 캐나다 동포 박태인의 '국경을 굽히는 일', 단편소설 부문에서 호주 동포 김혜진의 '악어', 수필 부문에서 미국 동포 김지현의 '고사리'가 각각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재외동포청(김경협 청장)은 전세계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7회 재외동포 문학상의 수상작 13편(시 4편, 소설 4편, 수필 5편)을 25일 발표했다.

※ 발표는 재외동포청(oka.go.kr), 코리아넷(korean.net), 소통24(sotong.go.kr)를 통해 진행

우수상에는 최재준(미국, 시 '몽돌해변'), 조혜경(미국, 단편소설 '북헌터'), 강선애(독일, 수필 '정체성, 그리고 나') 씨가 각각 당선됐다.

이들 수상자를 비롯한 13명에게는 총 3천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되고, 수상작은 작품집 '재외동포 문학의 창'으로 제작돼 배포될 예정이다.

지난 6월 한달간 진행된 문학상 공모에는 전 세계 61개국에서 총 2천400여 편의 작품이 접수되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89%

증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열기를 반영해 재외동포청은 올해 처음으로 수상자 전원을 고국에 초청해 시상식을 개최하고, 국내 문인들과의 다양한 네트워크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심사는 정호승, 나희덕, 문태준(이상 시 부문), 구효서, 은희경, 편혜영(이상 단편소설 부문), 박상우, 권지예, 윤성희(이상 수필 부문) 등 한국을 대표하는 문인들이 맡아 진행했다.

심사위원들은 “올해 문학상 공모에서는 전 세계 재외동포의 다양한 삶과 갈등, 상실과 열망이 담긴 작품들이 응모했다.”며 “본심에 오른 작품들은 미학을 충분히 구현해 독자적 완성도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김경협 청장은 재외동포 문학상 공모전이 문학 작품을 통해 모국과 동포사회를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동포들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계승하며 문학적 역량을 공유하는 장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 제공)

차세대 재외동포 역량 결집 위한 대표자 협의체 출범

재외동포청, 25일 '글로벌 차세대 씨앗' 띄워...

13개국 19명 위촉 김경협 청장 "모국과 재외동포사회 잇는 가교 되도록 지속 지원할 것"

전 세계 차세대 재외동포들의 성장과 역량 결집을 위한 대표자 협의체가 25일 출범했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이날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재외동포웰컴센터에서 '글로벌 차세대씨앗'(Global Future Generation Summit, GFGS)을 발족하고, 1기 위원으로 13개국 19명을 위촉했다.

이 협의체는 전 세계 차세대동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재외동포청과 글로벌 차세대동포 대표간 정책소통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

1기 위원들은 ▲지역별 차세대 대표 ▲입양동포 단체장 ▲모국 초청 장학생 동문 ▲재외공관 인턴 우수 수료자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차세대동포의 의견을 폭넓고 균형 있게 수렴하는 역할 수행하는 동시에 모국과 재외동포사회 간 연대 강화의 중심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첫 씨앗 회의에서는 전준홍(미국)과 토미 겐첼(미국)이 각각 제1기 대표와 부대표로 선출됐다.

전준홍 대표는 “글로벌차세대씨앗 제1기 위원들이 지혜를 결집하여 동포사회와 모국의 발전을 이끌어어나가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경협 청장은 위촉장 전달식에서 “다양한 배경을 지닌 동포들이 '한민족'이라는 공동의 정체성 아래 하나로 나아갈 수 있음을 확신한다.”며, “차세대 동포가 보유한 경험과 역량, 글로벌 네트워크를 모국과 연계하여, 모국과 동포사회 간 실질적인 연

대와 상생 발전에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는 시기에 대한민국은 글로벌 통상국가로서 지위를 굳건히 해왔기에 발전을 지속해올 수 있었다.”고 하며, “한국이 다시 한번 성장하고 도약하려면 남북의 평화 교류·협력체제를 공고히 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세대 씨앗 위원들이 이러한 명확한 방향성과 목표를 가지고 동포사회 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모국과 거주국 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글로벌통상 국가로서 도약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청장은 “글로벌 차세대 씨앗이 모국과 재외동포사회를 잇는 가교로 발전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차세대 동포사회의 성장과 역량 결집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청은 이 협의체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유망한 차세대동포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재외동포청 제공)

각국 한인회장들, 새정부 '평화공존' '공동성장' 비전 토의

재외동포청 주최 '2025 세계한인회장대회' 29일 개막...

67개국 370여 명 참가 4일간 공동의제 토론·정부와의 대화

재외동포청 바로 알기 등 프로그램 소화 김경협 청장

“재외동포, 한반도 평화와 번영 잇는 가교 역할해야”

전 세계 한인회장들이 국민주권 정부가 추구하는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연다'는 비전에 대해 논의하는 '2025 세계한인회장대회'가 9월 29일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막을 올렸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이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67개국 한인회장과 대륙별 한인회총연합회 임원 등 370여 명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는 '700만 재외동포와 함께 세계를 잇다, 미래를 밝히다'라는 슬로건 아래 10월 2일까지 나흘간 열렸다.

이날 오후 열린 개회식에는 김경협 청장을 비롯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 박성훈·박준태 의원 등 70여 명의 국내 주요인사도 자리를 함께했다.

김 청장은 개회사에서 “국민주권 정부가 추구하는 비전은 재외동포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길”이라며 “재외동포사회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어가는 가교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이 글로벌통상 국가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가 기반이 돼야 하며 동포사회와 함께 국제적 지지를 넓혀 갈 때 모두가 함께 번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대회에서는 '공동 의제토론'과 '지자체-동포사회 협업사례 발표'를 새롭게 마련했다고 소개하면서 “이번 대회는 동포사회의 미래를 준비



하고 모국과 실질적 협력과 연대를 이어가는 자리”라고 밝혔다.

한인회장들은 대회 이틀째인 30일 오전 신규 프로그램인 '공동 의제토론'에서 전 세계 한인의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법무부, 국세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립민속박물관이 참여하는 '정부와의 대화'에서는 각 기관의 동포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을 청취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같은 날 진행된 '지자체-동포사회 협업사례 발표'에서는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공유하며, 모국과 동포사회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대회 3일차인 10월 1일에는 △지역별 현안토론 △재외동포청 바로 알기 △전체회의의 △폐회식이 이어졌다.

대회 마지막 날인 10월 2일 오전에는 같은 장소에서 '제19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재외동포청 제공)

인천공항, 추석연휴 이용객 역대 최다 기록 전망

10.2~12까지...총 245만, 일평균 22만 이용 전망 대중교통

이용, 스마트 서비스 이용, 기내 반입 수하물 최소화 필요, 공항 측, 연휴기간 관계기관 합동 특별교통대책으로 여객 편의제고에 만전

인천공항은 올해 추석연휴(10.2~12, 11일간) 여객 예측치는 총 여객 기준 245만 3천명, 일평균 기준 22만 3천명으로 전망했다.

기존 성수기 최다실적인 올해 하계 성수기(일평균 21만 8천명) 대비 2.3% 증가해 역대 성수기 중 최다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지난해 추석연휴 실적(일평균 20만명) 대비 11.5% 증가한 수치다.

공항 측은 이번 연휴기간 중 여객이 가장 많은 날은 10월 3일로, 23만 9천명이 이용, 인천공항의 역대 최다 여객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금까지 인천공항 역대 최다 여객실적은 2019년 8월 4일 기록한 23만 4,171명이었다.

한편, 인천공항은 이번 연휴 기간을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공항혼잡 등 여객 불편이 없도록 관계기관 합동 특별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출국 수속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2여객터미널 1번 출국장 엑스레이 검색장비 확충(10대→17대) ▲증원된 보안검색인원 119명 전원 현장배치 ▲법무부 협조를 통한 출국장 1시간 조기 운영(06:00→05:00) ▲항공사와 협력해 추가 체크인 인력 및 안내인력 집중배치 등의 대책을 실시한다.

▶ 추석연휴 출입국장 운영 시간 확대 내용
제1여객터미널, 2번: 06:00~20:00 → 05:00~20:00, 3번: 24시간 → 24시간, 4번: 06:30~20:00 → 06:00~20:00, 5번: 05:00~22:00 → 05:00~22:00
제2여객터미널, 1번: 24시간 → 24시간, 2번: 06:00~19:00 → 05:00~19:00
또한,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주차장 운영방식 전환을 통한 총 1,300면의 신규 주차공간 확보 ▲심야 노선버스 운영 확대 등의 교통 대책

을 실시한다.

스마트 서비스 이용확대를 위해 스마트패스(안면인식 출국 서비스) 전용 출국장을 기존 3개소에서 5개소로 2개소 추가 운영하고, 공항 출발 전 출국장별 소요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출국장별 예상소요시간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천공항에서는 여객들이 편리하게 인천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3가지 이용 팁을 안내했다.

첫째, '적극적인 대중교통 이용'이다. 임시 주차장이 제공되어도 기존 주차장 대비 공항에서 거리가 있고, 혼잡상황 발생 시 대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둘째, '기내 반입 수하물은 최대한 간소하게'이다. 수하물을 항공사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휴대할 경우 예상치 못한 반입금지 물품이 들어 있어 보안 검색 과정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특히, 전자담배, 보조배터리 등은 위탁수하물 처리가 불가해 주의가 필요하며, 배터리 내장 무선 고데기의 경우 위탁 수하물 및 기내 반입 모두 금지되므로 공항에 가져올 수 없다.

마지막으로, '내가 타는 항공편 정보를 출발 전 다시 한번 확인'이다. 최근 에어서울과 에어부산이 제2여객터미널로 이전하며 이용 터미널이 변경되었고, 항공기 운항이 많은 성수기에는 예상치 못한 항공편 스케줄 변경 등도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인천공항 측은 연휴기간 자회사 노동조합의 파업예고와 관련해 공사는 정부, 자회사, 항공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지난 8월 18일부터는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해 운영하는 등 공항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신문)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Кроме того, они показали художественные номера и сразились в военно-тактической игре на местности, где команда «Ахтуба», в состав которой вош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ыполнила сложные спецзадания, проявила сплоченность, стратегическое мышление и в результате одержала победу.

25 сентября, торжественное закрытие финала провели в музее-панораме «Сталинградская битва». Статс-секретарь —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обороны РФ, председатель фонда «Защитники Отечества» Анна Цивилева отметила значимость мероприятия, где участники не только показали свои навыки, силу и мужество, но и доказали еще раз, что сообща можно преодолеть любые трудности. Кроме того, «Семейная зарница» определила еще одну важнейшую ценность современного общества — крепость семейных уз, а сами состязания стали символом преемственности поколений и важности исторической памяти о прошлом страны.

По итогам соревнований победителем стала команда из Волгоградской области «Амовцы». Организаторы мероприятия —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фонд «Защитники Отечества», Движение Первых, Движение «ЮНАРМИЯ», Центр «ВОИН» и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орон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사할린의 맛을 느껴보세요〉축제 2주간 진행

9월 29일부터 10월12일까지 2주간 〈사할린의 맛을 느껴보세요〉제 6회 사할린 요리 미식마라톤이 진행된다. 2025년 축제에 19개의 요식업체들이 참가하는 가운데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카페와 레스토랑이 주민들과 방문객들을 위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독특한 맛이 어우러진 창의적 메뉴를 준비했다.

미식마라톤의 공동의 과제는 해산물과 식용 야생식물과 사할린의 열매를 이용하는 것이다. 디저트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사할린 주민들은 흰 초콜릿과 브루스니카 가나슈를 곁들인 풍당(액상 초콜릿), 흰 초콜릿과 브루스니카 젤리

에 바삭한 슈트로이젤(파이 고명)을 곁들인 이완-차이 크림, 블루베리 판나-코티(설탕 넣은 크림을 젤라틴과 함께 굳힌 것), 사할린의 열매에 크림을 섞은 에클레르를 맛볼 수 있다.

셰프들이 선보이는 메뉴는 3가지의 요리가 한 세트로 가격은 1250루블리로 고정되며, 창안된 요리의 가격은 요식업체가 자체적으로 정한다.

올해 축제에서는 처음으로 〈가리비-파티〉를 개최해 사할린의 가리비를 주제로 한 행사가 10월 5일 12시부터 17시까지 '파티송-파크' 글램핑장에서 열린다. 또한 가리비요리에 따른 활동교실과, 바다를 주제로 하는 창작 활동교실(캔버스에 아크릴 물감으로 그리기, 석고 페인팅, 직물에 아크릴 물감으로 디자인), 줌바 댄스교실이 방문객들을 기다린다.

특히 셰프들은 미식가들을 위해 특별히 1000루블리 가격으로 독특한 3개 요리의 세트메뉴를 개발했다.

10월 6일부터 10일까지는 〈2025-사할린 가스트로캠프〉가 진행되어 이 행사에서는 요리사 단체와 관광업계, 지역 공공기관이 연합하여 강연과 토론에 따른 사업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가스트로캠프가 진행되는 동안 러시아의 각 지역에서 온 전문가들은 각 지역의 레스토랑 경영자뿐만 아니라 도시의 주민과 방문객들과 함께 자신만의 풍성한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좌림 와림(북고,끓이고)〉미식 공간에서는 지역의 식품을 활용한 요리 만들기에 대한 공개활동교실과 우수품질의 음료 만들기에 대한 활동교실도 열린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 전문가들의 요리과정을 지켜보고, 지식을 습득하며,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도 있다. 이 기획은 연방 및 지역 셰프-조리사들의 가스트로쇼로 마무리하면서 셰프들은 러시아와 한국, 일본요리를 통합한 사할린식 전통 쿨레바카(육류, 생선, 버섯을 넣은 파이)를 선보일 예정이다.

Фестиваль «Почувствуй вкус Сахалина» продлится две недели
VI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ий марафон островной кухни «Почувствуй вкус Сахалина» продлится две недели, с

29 сентября по 12 октября.

В 2025 году в фестивале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19 островных заведений. Кафе и рестораны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иготовили для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города авторское меню с локальными продуктами в необычных вкусовых сочетаниях. Общая концепция гастромарафона – использование морепродуктов, дикоросов и сахалинских ягод.

Отдельн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ют десертам. Сахалинцы смогут попробовать фондан с белым шоколадом и брусничным ганашем, крем на иван-чае с хрустящим штрейзелем на белом шоколаде и брусничным конфижуром, смородиновую панна-котту и эклер с кремом из сахалинских ягод.

Предложения от шеф-поваров включают в себя сет из трёх блюд по единой цене 1250 рублей и авторские блюда, стоимость которых заведения устанавливают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В этом году на фестивале впервые проведут «Гребешок-пати». Мероприятие, посвящённое сахалинскому гребешку, пройдёт 5 октября с 12:00 до 17:00 на базе глэмпинга «ПатиСон Парк». Гостей ждут мастер-класс по приготовлению гребешка и творческие мастер-классы в морской тематике (живопись акрилом на холсте, роспись гипсовых изделий и шопперов), тренировка по зумбе. Специально для гурманов шеф-повара разработали уникальный сет из трёх блюд стоимостью 1000 руб.

А с 6 по 10 октября пройдёт «Гастрокэмп Сахалин - 2025». Это мероприятие объединит поварское сообщество, туристический бизнес и региональные органы, которых ждёт деловая программа с лекциями и дискуссиями. Во время работы гастрокэмп приглашённые специалисты из разны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поделятся своим богатым опытом не только с местными рестораторами, но и с жителями и гостями города. На площадке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Жарим Варим» проведут серию открытых мастер-классов по приготовлению блюд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локальных продуктов, а также мастер-классов по приготовлению фирменных напитков.

Все желающие смогут понаблюдать за работой профессионалов, перенять знания и задать свои вопросы. Завершит проект гастрешоу от федеральных и региональных шеф-поваров. Они приготовят традиционную кулебяку по-сахалински, объединяющую в себе черты русской, корейской и японской кухни.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6 год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полугодие — 885 руб. 96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г (주필) 배 워토리야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